

# 우바이들, 15년 보살행 그 폭을 넓힌다

## 불교여성개발원 창립15주년 향후 역점 사업 발표

“지난 15년간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모두 가진 재능과 능력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고 감동하며,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이제 그간 다진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이 창립15주년을 맞아 우바이로서 보살행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00년 11월 대승보살 원력으로 여성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사명 아래 창립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이 창립15주년을 맞았다. 여성개발원은 15년간 여성 불자 역량결집, 양성평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회 다방면서 활동하며 불교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는 약 1천 명 회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며, 불교정토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자비나눔 바자' 개최, 합창단 운영,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만들기 교육, 교정교화 활동, 한부모가족 지원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으로도 역량을 확대해 2006년과 2013년 각각 부산지원 및 강원지원을 창립했다. 산하기구로 여성불자108인회·가족지원센터·교정교화센터·명상리더십센터·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불교여성연구소·승만경연연구회·사찰음식문화센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이 연극 '토라진 부처님'을 공연하고 있다.

터·웰다잉운동본부·지혜장학회·성남시 고등동복지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불자108인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을 대표하는 산하단체다. 사회적 귀감이 되는 불교여성지도자를 발굴해 대사회적 공헌도를 알리므로써 여성불자 간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키 위해 2003년부터 격년마다 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7차 여성불자108인을 발굴하며, 총 7백여 명이 여성불자108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을 공식 출범함으로써 종교 단체로서 활동 범위를 극복, 대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대중적 포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여성

**전국 11개 산하 약 1천 명 회원 양성평등·교정교화 활동 등 '활발' '지혜로운여성' 설립 후 대사회화 15주년 기념해 장학사업 출범도 '미래불교 위해 인재양성 힘쓸 것'**

가족부 소관의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지혜로운여성은 성남시 고등동복지관 위탁 운영 및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지원봉사자양성교육 실시 등 정부 및 지자체와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개발원은 창립15주년을 맞아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장학생을 선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에

여성개발원은 중앙승가대 제마 스님, 박애경·김태섭 씨에게 각각 장학증서 및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여성개발원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불교여성광장 건립'이란 대원력을 세웠다. 불교여성광장은 여성불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및 수행·봉사활동의 체계화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결집의 공간이다.

박순 원장은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향한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과 발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대행 송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 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묵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은 남다른 신심과 원력으로 지역과 단위 사찰, 해당 분야 활동을 넘어 중당과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회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여성불자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진흙 속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남지심·임완수 작가 극본의 '토라진 부처님' 연극을 선보였으며, 기념식 후에는 월호·진명 스님 등과 함께하는 토크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가 진행됐다.

글=박아름 기자·사진=윤호섭 기자

# 22개 군법당, 십시일반 '군법당 불사'

군종교구, 21일 고양 백마일승사 낙성법회 개최



군종교구는 11월 21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백마일승사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시급한 군법당 불사에 전국 22곳 군법당이 십시일반 동참해 화제다. 군종교구는 11월 21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백마일승사(주지법사 서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기존법당이 1996년 안전문제로 폐쇄돼 부대 강의장에서 법회를 진행해왔다. 올해 2월 신병교육대대 자정관 대중공양 행사에서 이런 상황을 본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불사를 발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연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22곳의 다른 부대 군법당에서 불사금 4200만원을 모연했다. 여기에 군종교구 5000만원, 범어사 3000만원, BTN불교TV 무상사 2000만원, 일산 여래사 1000만원, 관산여래사 1000만원, 일산 길상사 500만원, 일산 원각사, 정혜사, 진각사에서 각 300만원 등 전국의 불자들이 총

2억2000만원을 모아 불사에 동참했다.

낙성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고양시 조계종주지협회회장 보산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3군사령부 보명 공영호 법사 등 3군 예하 군승, 9사단장 강천수 소장, 군장병, 무상사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낙성법회에서 “사부대중의 아름다운 보시가 모인 이곳에 군장병들이 따뜻한 병영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사단장 강천수 소장은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마련된 백마일승사는 앞으로 백마부대 장병들의 마음을 닦는 진리의 도량으로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성법회 후 진관사에서 후원한 자장면이 9사단 장병들과 불사 동참불자 등 750여 명에게 제공됐다. 노덕현 기자

#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열려

BBS불교방송, 12월 19일 본선무대 개최

12월 3일 예선 접수 마감

어린이들의 끼와 창의력을 '찬불 동요'를 통해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BBS불교방송이 12월 19일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 법당 다보원에서 '창사25주년 제6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개최한다. 이날 무대는 12월 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는 예선작 중 비공개심사를 통과한 본선진출자들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본선진출곡은 12월 4일 BBS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응모분야는 △작사·작곡 △가창 △독창 및 중창(8인 이하) 등이다. 작사·작곡은 연령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가창과 독창 및 중창은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르는 가요, 국악, 합창(합) 등 불문하지만, 가사는 반드시 불교적 내용이어야 한다. 시상내역은 △대상(1팀) 상금 2백만 원



제6회 어린이·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공식 포스터

△금상(1팀) 상금 1백만 원 △은상(1팀) 상금 50만 원 △동상(1팀) 30만 원 △인기상(1팀) 상금 30만 원 등 시상한다. 또한 본선 진출작 지원에 대해서는 상장이 수여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조계종 교구신도회 전국창립 눈앞에

22일 해인사 신도회 창립... 12월 18일 24교구신도회 체제로

진중삼 전 경남도의회 의장 초대회장  
12월 6일 마곡사·18일 신홍사 창립

조계종 교구신도회가 전국 24개 교구 체제 구축을 눈앞에 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제12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진중삼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와 함께 12교구신도회는 홍정숙(법명 감로행), 김현조(법명 해인심) 씨를 부회장으로 김중복(법명 법흥), 하성수 씨를 감사로, 조선화(법명 법성광) 씨를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진중삼 회장은 경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용성 스님이 주석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화곡원을 국가사적지로 지정추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 회장은 “불법의 진리 아래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활발한 신행활동으로 의호대중의 역할과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창립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항적 스님과 수말사 주지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해 교구신도회 발족을 축하했다.

해인사 주지 항적 스님은 “신도회 결성은 사부대중이 함께 법보증찰 해인사의 발

전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신도국장 덕산 스님은 “향후 제12교구신도회가 해인총림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불교인재 발굴과 양성 그리고 교육 및 대사회적 실천 사업 등 다방면에서 사업의 영역을 펼쳐라라 믿는다”며 교구와 지역에서 다양한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을 부탁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6일 제6교구 마곡사 신도회, 12월 18일 제3교구 신홍사 신도회를 창립해 전국 24개 교구에 교구신도회를 모두 구축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교구신도회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7일부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제12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터 2박 3일간 중국 청도에서 2015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임원연수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등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17개 교구신도회와 16개 신도단체 대표, 각 교구본사 주무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9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에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중·고·대·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산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